

# '23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15	회의실	9/12	4	1	14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선희·김영신·노동일·송경용·심상돈·오광호·이상길·조경완·최정욱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윤행석(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4	6	0	1	11	0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1	0	11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뉴스진행자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함. 새로운 얼굴 기대함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하반기 프로그램 개편 시 반영 조치 예정	'23.2.
"	광주비엔날레 개막 등 자세한 소식 알려주길 바람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뉴스데스크> 디자인을 만나다(2.27), <뉴스투데이> 광주비엔날레 9개 나라 파빌리온 특별전시(2.22),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3.9) 등 방송 조치	"
"	토론 프로그램 시 토론자의 복장 일관성 필요 및 테이블 하단 투명해 출연자의 하의, 신발 노출돼 시청 시 시선 분산 아쉬움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광주·목포·여수MBC 3사 공동 토론 프로그램 신설 제작 시 세트 변화 시행(3.23) 조치	"
"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졸업식 현장 소개 바람	-시사보도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뉴스데스크> 얼마만의 입학식인가요(3.2), <뉴스투데이> 남부대 국제수영장 이색 입학식 진행(3.1), 동신대 전기학위수여식 열려(2.23) 등 방송 조치	"
교양	<본방을 보자> 월간본술랭 가이드에서 시식 후 MBC들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음. MC의 시식은 지양하길 바람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에서 Y2K 스타일 옷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음악이 거의 들리지 않았음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줌인 노래방, 고정된 화면이 답답한 느낌이 들어 노래와 연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관된 배경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음		
"	<본방을 보자> 고향사랑기부 소개 시 유의사항 등 정보 부족 아쉬움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전남 관광산업 홍보를 위한 관심 필요	-편성 및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뉴스투데이> 남해안청 필요성 은?(3.8), 미래 도시계획의 토대 (3.6), 성공개최 한마음(3.3), 불과 빛의 만남(2.24), 외국인 32만명 목 표(2.21), <뉴스데스크> 다시 만나 는 정원박람회(3.2), <시사용광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전남관광 (3.23) 등 방송 조치 등 방송 조치	"
"	<본방을 보자> 통근 열차 소개 시 인 터뷰 마무리 아쉬움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기타	광주MBC 유튜브 채널 홍보, 지역민이 지역 뉴스 접할 수 있기를 바램	-뉴스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 제작, SB 시간대 송출 시행(3.18) 조치	"
보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설립 과정 들여다본 다(3.8), <뉴스투데이> 감사원 감사 파문(3.9) 등 방송 조치	'22.12
총 건수		12건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 론
보도	뉴스진행자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함. 새로운 얼굴 기대함	주말 뉴스 진행을 맡은 앵커를 올해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 콘텐츠본부와 협의를 통해 참신한 진행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		
"	광주비엔날레 개막 등 자세한 소식 알려주길 바람	2023 디자인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관련 소식을 개막 한 달 전에 자세한 리포트를 제작할 예정임	○		
"	토론 프로그램 시 토론자의 복잡 일관성 필요 및 테이블 하단 투명해 출연자의 하의, 신발 노출돼 시청 시 시선 분산 아쉬움	광주·목포·여수MBC 공동 토론 프로그램 방송을 앞두고 제작 세트에 변화를 줄 예정이어서, 테이블 하단을 불투명하게 제작하겠음	○		
"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졸업식 현장 소개 바람	지역대학 대면 졸업식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교양	<본방을 보자> 월간본술랭 가이드에서 시식 후 MBC들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음. MC의 시식은 지양하길 바람	제작 시 유의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옛 Y2K 스타일 옷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음악이 거의 들리지 않았음	제작 시 더 유의하여 시청 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줌인 노래방, 고정된 화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줌인 노래방은 실시간 참여 시청자가 라이브로 개인용 PC나 노트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 론
	어 노래와 연관된 배경을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음	복을 통해 줌(zoom)으로 연결되므로 화면이 고정될 수밖에 없음. 배경을 바꿀 수 없는 한계 양해바람			
"	<본방을 보자> 고향사랑기부 소개 시 유의사항 등 정보 부족 아쉬움	추후 제작 시 고려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음	○		
"	전남 관광산업 홍보를 위한 관심 필요(오광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수단을 취하겠음	○		
"	<본방을 보자> 통근 열차 소개 시 인터뷰 마무리 아쉬움	향후 생방송 연결 시 매끄럽게 마무리되도록 주지하겠음	○		
기타	광주MBC 유튜브 채널 홍보, 지역민이 지역 뉴스 접할 수 있기를 바람	광주MBC 뉴스 채널 홍보를 위해 연빛나 장유진 앵커가 출연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SB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송출할 예정임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2월)

일 시		2023. 2. 15.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곽선희, 김영신, 노동일,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이상길, 조경완, 최정욱(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노동일 위원님,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성과 있게 마무리되었는데 수고하셨다. 역점 프로그램으로 <마한>이 방송됐고, <레드디쉬>도 방송이 된다. 역동적으로 광주MBC가 움직이는 것 같다. 사실상 사회 모든 부분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활기차게 분위기를 띄는 것 같다. 우리 위원회도 역동적으로 광주MBC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광주MBC가 6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 목표는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자 한다. 의미 있는 콘텐츠를 잘 발굴하고 그걸 통해 자력할 수 있는 회사가 돼보고자 한다. 관심을 가지고 조언이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조경완 위원장 : -업무보고를 해달라.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한국 김치의 우수성과 다양한 변주를 탐색한 UHD 다큐멘터리 <레드디쉬> 방송이 3부 2월 25일, 4부 2월 26일 예정돼 있다. KCA 제작지원 OTT용 숏폼 다큐 <솔로 하우스>를 지상파 방송하는데 1부 자신만의 솔로 하우스를 만든 사람들, 2부 나를 표현하는 '취미 하우스', 3부 따로 또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솔로 하우스, 4부 로컬에서 찾은 나만의 공간을 방송하고, 방송 후에 OTT 왓차에 올리게 된다. <문화콘서트 난장> 녹화가 전남음악창작소,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광장, ACC 문화광장에서 예정돼 있다. 연중 캠페인 <영산강> <무등산을 사랑하자> <더불어 삽니다> 계속 제작하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스토어 맛보장 남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소식 전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전력 농사용 위약금 폭탄 집중보도했는데, 서울 MBC 보도본부 특종상에 이어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정부 대책 비판 보도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관련 대법원 판결 지연과 제삼자 변제 안 카드를 꺼내 든 정부 대책을 꾸준히 비판하기도 했다. '가뭄 식수난' 집중 보도를 지속했으며, <시사 온> 신년 기획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광주·목포·여수 MBC 3사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3월 중순 시사 프로그램 3사 공동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 취재센터 준비 중이고, 우종훈, 김초롱 기사를 전담 배치하겠다. 유튜브와 틱톡 등 디지털 뉴스 확대 추진을 진행 중인데 유튜브 쇼츠 등 콘텐츠 생산을 늘려 구독자 배가 운동을 전개하겠다. 또, 서울 MBC 뉴스 채널에 광주MBC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다.
- 곽선희 부위원장 : -2월 7일 뉴스본방에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 농민 수당지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소개와 가사수당 지원예정 뉴스는 신선했다. 본방토크 정치 소식에 강기정 시장께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소식이 있었다. 3시간 동안 진지했다는데 지역 신문 등에서 부정적 부분만 쟁점이 된 평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부산 소막 마을을 보면서 피난 시절의 애환과 아픔이 있는 생활상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다. 2월 8일에는 송정 주차빌딩이 5월 본격 가동 개통 소식과 400여 대에서 1,580대 수용소식 반가웠다. 제14회 비엔날레 개막 소개와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위상이 높아진 광주비엔날레 안내가 있었다.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전시 기간 안내 등 개막전에도 한 번 더 자세한 소식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광주역 셔틀버스 안내 반가웠고 광주역이 부활 되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2월 9일 <본방을

보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특산품 소개, 세액공제 소개와 참여 방법 등 간단한 안내 유익했다. 뉴스본방 등 뉴스가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과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시청자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자주 보게 되니 화면에 익숙해지고 내용에 몰입하면서 익숙해지는 느낌 들어 긍정적인 모습만 보게 된다. 줌인 노래방 부분에서 고정된 화면이 답답한 느낌이 들어 노래 가사와 연관된 배경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 김영신 위원 : -<광주MBC 뉴스데스크>는 <MBC 뉴스데스크> 말미에 약 10분 내외로 지역 뉴스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소식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광주 MBC 뉴스는 독자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위 채널의 구독자는 최근 6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은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40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실시한 뉴스를 스트리밍하다 보면 점차 구독자 수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처럼 TV 본방송을 전부 시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널의 다변화 및 실시간 뉴스 방송이라는 이점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프로그램 내용상으로도 최근에는 덕남정수장의 물난리 상황과 같이 특히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또한, 글로벌 이슈이지만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보도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주민들의 기부 현황 및 도움을 줄 방법 등을 알려주어 지역주민의 온정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따뜻한 뉴스였다. 광주MBC 유튜브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되어서 지역주민이 쉽게 실시간으로 지역 뉴스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노동일 위원 : -흑자를 보신 것에 대해 기쁘다.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한 것이다. 광주MBC에서 흑자를 본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가스비를 다른 지역에서는 올리고 했다는데 광주는 그렇지 않다. 광주의 물난리 때문에 목욕방법을 바꿨다. 따뜻한 물수건을 묻혀 몸을 닦는다. 칫솔질도 컵에 물을 받아서 한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시내에서 걸어서 오는데,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다. 공사로 인해 상수관을 파손해 물이 그냥 펄펄 쏟아졌다. 나는 조금 아끼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물을 흘려보내는가 싶었다. 담양LP음악충전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담양에서 지인들과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는데 여기는 커피를 안 판다. 커피를 팔면 테이블 회전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좋다. 한전 단속은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상을 받았다. 시청자위원회를 하면서 자연히 MBC를 보게 된다. 이런 공론의 장에서 주위에서 그런다. 뉴스진행자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미지다.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얼굴이 어떤가 그런 얘기도 있었다.
- 이상길 위원 : -고흥군에 갔더니 고향사랑기부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본방을 보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개했다. 특별히 잘 봤다. 지역 소멸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해줬다. 공무원에게 들으니 과욕이 되면 안 되겠다. 향우회 같은 데에 가서 기부를 받으면 안 되는 등 공무원 제약사항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고향사랑 기부를 한다면 사업과 연관해서 해도 안 된다고 한다. 유의사항을 지적해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광주MBC가 노력했는데 그런 유의사항 몇 가지 조금 더해줘서 정보를 주면 좋았을 것이다. 고흥군청은 100만 원 이상 하면 동판을 새겨준다고 한다.
- 오광호 위원 :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을 듣는다. 할 때마다 새로운 핫이슈 될 때마다 주요 인물, 지자체, 국회의원 등이 출연하는데 넓히면 좋겠다. 평범한 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1월 30일부터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광주MBC 시사ON>에서 전남 관광의 현주소와 활로를 주제로 방송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침체해 있던 관광 산업이 많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대정 전라남도 관광과장이 올해가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라고 소개하면서 4월 순천국제정원박람회, 9월 국제농업박람회, 10월 목포 전국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말씀해주셨다. 2023년은 전라남도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한 해이므로 행사들을 소개할 때 포스터나 사진 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연령대별 전남지역 관광객 비중을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프에 따르면 관광객 비중은 중장년층에 몰려 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청년층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30대 관광객 공략법으로 k-pop 스타 초대, edm 축제, 이색체험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광주MBC 방송을 통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본방을 보자>에서 경기 불황,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 점을 소개해 줘서 좋았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5.47% 상향된 것, 기본재산 공제액이 5,300만 원으로 인상된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줘서 홍보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송정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통근 열차 소개를 위해 기자가 실시간으로 열차 승차 및 하차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좋았다. 탑승객의 인터뷰를 통해 통근 열차의 장점을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터뷰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아 아쉬웠다. 실시간 방송이더라도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시간 조정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 송경용 위원 : -마스크를 벗고 새로 시작하는 캠퍼스 모습을 소개해 줘도 좋겠다. 다음 주 졸업식이 시작된다. 마스크를 벗고 첫 3년 만에 대면 졸업식이다. 축제식으로 실용음악과 밴드 공연, 기관장 축하 대신에 졸업생 축하를 한다. 좀 더 색다른 졸업식을 하고자 한다. 코로나 이후 변하는 모습이다. 그런 현장을 방송이 해줘도 좋지 않을까.

-<본방을 보자>에서 ‘광주선 셔틀열차 운행시간을 확인하세요!’라는 방송을 보고 바쁜 퇴근길에 통근 열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박지선 리포터가 직접 승차해 알려줬다. 많은 국민이 모르는 정보이기도 하고 대부분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통근 열차를 탐으로써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늦게 운행하지 않는 다른 대중교통과는 다르게 00시 31분에 막차가 운행되고 첫차도 05시 02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익한 정보였다. 2월 12일 “가뭄에 때아닌 물난리.. 광주광역시 일대 단수의 원인 덕남정수장 현장” 영상을 보았다. 광주 남구에 있는 정수장 시설이 고장 나 광주 3개 구 지역에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다. 배수지로 물을 보내는 밸브가 열리지 않으면서 도로 일대에 물이 흘러넘쳐 흐르고 있다는 걸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광주댐에 물이 부족해 물을 절약시키려는 헛된 긴급재난문자인 줄 오해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영상을 통해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2월 13일 <광주MBC 뉴스투데이> “가스비 폭탄 ‘도자사업’도 직격탄”이라는 방송을 보고 가스비 폭탄이 다양한 업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끼게 해줬다. 도자 사업은 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며 운영하기에 IMF의 사태 이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심각히 여기는 나광국 전남도의회원이 우리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다. 적절하고 신속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심상돈 위원 : -<시사 ON> 전남 관광의 현주소와 활로를 시청했다. 토론 프로그램이어서 복장의 규정이 엄격하지는 않겠지만 토론 참가자의 복장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 사회자분들은 클래식 평상복인데 토론자 두 분은 정장, 한 분은 클래식 평상복이었다. 또한, 정장 토론자의 넥타이 착용 상태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토론은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것이지만 방송이라면 스튜디오의 상대방만을 주시하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카메라를 보면서 토론을 진행해야 시청자에게 좀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진행자와 참가자의 테이블 하단이 투명한 구조이어서 하의와 신발 부분이 노출되었고 시청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점도 아쉬웠다.
- 최정욱 위원 : -<본방을 보자> 월간본술랭 가이드에서 디저트에 대한 소개 후 MC들의 시식이 있었다. 시식 후 MC들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 생방송에는 MC들 시식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2월 1일 Y2K 컨셉으로 진행해서 신선했다. 류권형 MC 같은 경우 전현무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좋았다. 방송 중간에 언니가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박지선 리포터가 Y2K 스타일 옷을 여러 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신나는 배경음악이 있었으면 지루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음악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 조경완 위원장 : 오늘도 좋은 의견 감사드린다. 이것으로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